

● 무단 침입

한은형, 소설가

2013. 9. 12 - 10. 27

처음에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 침대가 정신없이 흔들렸으니까. 수상한 소리가 들렸고, 머리에 터번을 쓴 남자가 벽에서 걸어 나왔어. 엉덩이가 투실투실한 양을 데리고. 꿈인지 꿈이 아닌지 알 수 없었지. 무단침입한 남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어. 그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는 양을 배달하러 온 것이었어. 내가 양을 주문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양을 사라고 했어. 그는 풀죽은 표정으로 내 침대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 자기가 나온 벽으로. 너한테 땅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내 침대에도 그곳의 입구가 있는 줄 몰랐어.

나는 눈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왔어. 너의 첫인사였지.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어. 나도 눈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왔고, 너처럼 누군가에게 말했었으니까. 너는 눈이 오는 날이면 나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었지. 우리 숙소 앞의 얼음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는 좋았어. 배수구에서 넘친 물이 폭포처럼 언 것을 보고 네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던 게 기억나거든. 바다에 갔다 온 계곡개구리 같았어. 얼음 폭포는 누군가의 고향에서 가져온 달력에 있는 폭포와 닮은 모양이었어. 그리고 눈과일! 너는 눈이 내리면 양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먹곤 했지. 너의 고향에서 비가 많이 오면 함께 내리기도 한다는 흐느적거리는 비과일을 그리워하면서.

네가 남겨둔 그 말을 기억해. “이번엔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죠?” 너는 갔고, 나는 남았어. 이제 정말 이곳이 고향 같아. 내가 태어난 그곳보다 여기에서 산 시간이 더 오래되어 버렸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디나 고향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이곳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기분 같은 그런 거. 어느 명절엔가 목욕탕에 갔던 거 기억해? 다른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강원도로 갔었잖아. 그리고 시내에 있는 탕고에 갔지. 불이 꺼진 간판 아래에서 이상하게도 기뻐서. 돈을 모아서 큰맘 먹고 간 거였는데.

무단침입

한은형

●

이상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 기억나는 것들은 모두 행복한 일들이야. 사람들이랑 축구 하고 나서 맥주 마셨던 것. 자기 나라의 맥주들을 마셨잖아. 싱하, 창, 라오라오, 킹피셔, 사이공, 바바바. 너처럼 알라신을 믿는 친구들은 말고. 네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잊어서 미안해. 무심함은 아니야. 우리 고향 사람들은 술을 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민영슈퍼는 대단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잖아. 태극기가 아니라면 한국인 줄 모를 거야. 네가 만들어준 화단은 여전히 잘 있어. 우리가 마시고 난 빈 맥주병들로 테두리를 만든 거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빈 병들을 볼 때마다 그 맥주의 원산지인 곳으로 돌아간 친구들의 얼굴이 기억나니까. 행복들이 모여서 어떻게 슬픔이 되는 걸까? 이상해.

전화결혼식 사진을 보고 있어. 신부는 없고 신랑인 너와 나, 여기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는 모두 활짝 웃고 있지. 너는 정말 바보 같아. 신부도 없는 결혼식이 뭐가 그리 좋은지. 네가 말했잖아. 신랑이 땅굴을 통해 신부에게 가기도 한다고. 너의 고향인지 너의 고향 옆 나라에서인지. 그날 밤, 너는 땅굴을 통해 신부에게 가겠다고 했어. 신부에게도 말했다고. 나는 놀렸지. 꿈에서 만나는 건데 꼭 땅굴로 가야 하느냐고. 너는 고집을 피웠어. 네 꿈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너는 땅굴 꿈을 꿨는데 신부는 땅굴 꿈을 안 꾸면 어찌냐고 물었지. 너는 그 생각은 못했다고 인정했어. 나도 웃었고, 너도 웃었지.

또 지진이 난 줄 알았어. 이번에는 땅 바닥이 울렸거든. 그 소리에 잠에서 깬지. 핸드폰을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이상해. 통화기록을 봤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던 거야. 또 땅이 울렸어. 전화를 받았지. 이번에도 그랬어. 침대 뒤를 확인했어. 남자가 양을 데리고 들어왔던 구멍은 막혀 있었어. 누군가가 나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어. 전화는 분명히 왔었고, 양을 데리고 온 남자와 나는 만났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손 끝에 만져지는 이 부슬부슬한 털들은 뭘까? 또 핸드폰이 울렸어. 진동은 점점 커졌는데 나는 전화기를 찾을 수 없었어. 전화는 끊기지 않았고 진동도 끊기지 않았지. 지금까지도.